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11.19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332.20원(-3.30원)

KOSPI

5,067.44(+98.96, +1.99%)

KOSDAQ

662.81(+12.75, +1.96%)

국고채 10년 금리

3.975(+0.009%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미국 소프트웨어	거대한 변화, 더 큰 기회 [김재임]
2027년 미국 유망테마	2027 대선레이스와 트럼프의 승부수 [강재구]
중국 AI 산업	미중 AI 생태계 경쟁,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백승혜]
제약바이오	시장이 밀어주는 때는 반드시 다시 온다 [김선아]

Global Asset Strategy

자산배분의 창(窓)	달리는 소비, 고르지 않은 미국 가계 체력 [이영주]

기업분석

현대글로비스	중국에서 확인한 PCTC에서의 성장 기회 [송선재]
제주항공	한-중 FTA 타결, 중국 관광객도 제주항공을 타고 온다 [안도현]

산업분석

무선 통신 장비	3년전 BEAD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OBBBA를 봐라 [김홍식]
엔터/미디어/레저	한한령 완화 기대감 관련 코멘트 [이기훈]

Monthly & Weekly

제약바이오	코스피 제약사 중심으로 헬스케어 상승 확인 [김선아]

글로벌리서치

엔비디아	주가 과락 구간에서 회복 예상 [김록호]
월트 디즈니	스트리밍 성장에 더해 수익성 개선까지 [이기훈]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삼양식품, 이수페타시스, 팬오션, 효성티앤씨, 계룡건설, 케이엠더블유

하나증권

글로벌 산업

2026년 11월 19일 | 글로벌 인덱스

미국 소프트웨어(요약본)

거대한 변화, 더 큰 기회

2026년 소프트웨어 산업 Review

• 2026년 미국 소프트웨어 업종은 AI 대체 가능성과 성장 둔화 우려로 크게 조정. 업종 12개월 선행 P/CF는 16.8배로 최근 3년 최저 수준, 3년 평균 대비 약 33% 낮음.

• 기업 AI 시장은 프런티어 모델사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2026년 기업 AI 지출의 69%를 주요 모델 3사가 차지했으며, AI 애플리케이션 지출은 코딩과 챗봇에 76% 집중.

•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SaaS의 사용자 수 기반 과금 모델에 구조적 변화 압력 증가. 그러나 기존 SaaS 사업자가 축적한 기업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접근과 실행 권한은 핵심 경쟁력으로 유지.

•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분야별 경쟁 구도 차별화. 코딩과 챗봇 등에서는 AI 네이티브 사업자가 주도하는 반면, IT 서비스(91%), 데이터 사이언스(88%) 등에서는 기존 SW 사업자가 높은 점유율 유지. 현재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들 분야의 투자 확대는 기존 사업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전망.

2027년에도 데이터플랫폼과 사이버보안 차별화 더욱 뚜렷

• 2027년 IT 투자에서는 데이터 플랫폼과 사이버보안에 주목. IT 예산 확대를 계획한 기업들은 AI(91%), 사이버보안(84%), 데이터 분석(79%)을 주요 투자 우선순위로 제시.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와 보안 체계 현대화가 주요 투자 과제.

•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저장과 분석에서 AI 실행 기반과 업무 애플리케이션으로 역할 확대. SNOW는 AI 제품 효과로 최근 두개 분기 매출 성장이 가이던스를 7ppt 상회. CY27년 매출 성장도 컨센 (29%)을 크게 웃도는 35%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 DDOG는 AI 대형 고객 증가와 Non-AI 매출 성장 가속화에 주목. AI 운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IT모니터링 시장이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DDOG가 최대 수혜주. CY27년에도 30% 가까운 매출 성장 예상

• 사이버보안은 전체 시장의 구조적 성장 속에서 소수 통합 플랫폼 사업자의 점유율이 더욱 커지고, 신규 AI 보안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 PANW는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수요 증가에 더해 아이덴티티 보안과 옵저버빌리티 사업 인수 효과가 FY27년부터 본격화 전망. CRWD는 FY27 순신규 ARR 성장 가이던스를 2개 분기 만에 22.5%에서 34%로 상향하며 AI 제품 효과에 따른 전사 성장 가속화 입증. Falcon Flex를 통한 고객당 계약 확대와 AI 보안 제품 효과로 CY27년 매출 성장은 현재 컨센(23%)대비 업사이드 클 것으로 예상

Top picks는 마이크로소프트(MSFT), 스노우플레이크(SNOW), 팔로알토(PANW),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 데이터독(DDOG)



Analyst 김재입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2026년 11월 19일 | Global Equity

2027년 미국 유망테마

2027 대선레이스와 트럼프의 승부수

미국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2028년 대선을 준비하는 2027년, 성장과 민생이 정책의 중심

-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며 분점정부 출범.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정책 경쟁 본격화 예상
- 트럼프 행정부는 AI·제조업·방산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중간선거에서 확인된 생활비 부담과 민생 불만 완화도 주요 과제
- 양당 모두 미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국 의존도 축소라는 정책 목표 공유. 기존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연속성 유지 가능

2027년 미국 증시: 경제성장과 기업이익 개선 지속

- IMF는 2027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며 미국 경제의 상대적 성장 우위 지속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3.6%에서 2027년 2.8%로 둔화 전망. 물가 안정과 실질 구매력 개선이 민간소비 회복 뒷받침
- S&P 500의 2027년 EPS는 16.2% 증가 예상. 12개월 선행 PER 18.3배로 최근 5년 평균 19.8배 하회.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2027년 투자전략: 정보기술·산업재 선호, 소비는 선별적 접근

- 정보기술은 2027년 EPS 성장률 +42.2%, 최근 3개월 추정치 +10.4%로 성장성과 이익 모멘텀 우위. 최선호 섹터 유지
- 산업재는 리쇼어링·전력·방산 투자에 따른 중장기 성장 기회 확보. 업종 전반보다 하위 산업 선별
- 소비는 실질 구매력 회복과 AI 기반 유통산업 변화에 주목. 가격 경쟁력과 유통 역량이 기업별 실적 차별화 요인

2027년 다섯 가지 투자 기회: AI에서 첨단산업·소비로 성장 확산

- AI: 클라우드 수익화, 에이전틱 AI의 연산 수요 증가, 소버린 AI 투자 확산
- 생산성 혁신: AI 에이전트와 기업 데이터의 연결을 통한 업무 자동화·생산성 개선 기대
- 첨단 제조업: 미국 제조업 강화와 현지 생산시설 투자 지속. 산업용 반도체 회복, 산업 자동화·모션제어 부품의 구조적 성장 기회
- 방산: 이란 전쟁 이후 미사일 재고 보충과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 증가. 누적된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과 생산 효율 개선에 주목
- 소비: 물가 안정에 따른 구매력 회복과 소비 양극화 지속. 에이전틱 AI 기반 상품 탐색·구매 확대로 유통기업의 경쟁구도 변화 예상

2026년 11월 18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중국 AI 산업

미중 AI 생태계 경쟁,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China

Top Picks 및 관심종목

Piotech(688072.CH)
TP 943.79CNY I CP 522.68CNY

AMEC(688012.CH)
TP 407.9CNY I CP 244.17CNY

북방화창(002371.CH)
TP 847.88CNY I CP 574.04CNY

CXMT(688825.CH)
TP 77.08CNY I CP 36.91CNY

유니트리(688836.CH)
TP 696.06CNY I CP 608.3CNY

*CP 2026년 11월 18일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AI 생태계 전반으로 경쟁 심화됨에 따라 美 견제 범위와 강도 확대될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부터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반도체 칩 및 제조장비에 이르기까지 기술 생태계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년 기점으로 중국의 AI 모델, 휴머노이드 제품의 글로벌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향후 관련 영역으로 미국의 견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AI 모델의 빠른 글로벌 확산과 AI 생태계 영향력 확대를 통해 중국 AI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중국 AI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오픈웨이트 AI 모델의 가격 경쟁력과 개방성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중국산 AI 서비스, 디바이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기술 스택 전반에 대한 의존도 확대로 연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Mythos급 AI 모델의 등장으로 우월한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가 경쟁국에 대해 상당한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첨단 AI 모델의 기술 경쟁력은 앞으로도 미중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CXMT의 HBM 공급 규모가 중국 AI 연산능력 확대 속도를 좌우할 것

단기적으로 AI 공급망에서 가장 큰 병목은 HBM으로 CXMT의 HBM 공급 능력이 중국 연산능력 확대 속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HBM과 AI 반도체가 차세대 기술을 통해 EUV 없이 최첨단 성능 구현과 대량양산이 가능해진다면 중국 AI 연산능력 증가 속도는 가팔라질 수 있다. 또한, 미중 AI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은 해외 DC 접근, 밀수, 미국산 AI 모델 증류 등 비공식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연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해왔으나, 이와 관련해 앞으로 미국이 규제 수위를 높이면, 중국의 AI 공급망 자립, 특히 HBM, EUV 등 중국이 가장 취약한 영역에서의 기술 자립 속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중국산 HBM만 사용할 경우 화웨이의 AI 연산능력 생산 규모는 2028년까지 엔비디아의 약 1%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DRAM 생산능력 확대와 HBM 생산 비중 증가로 CXMT의 HBM 생산능력은 2026년 말 대비 2030년 약 10배 증가할 전망이지만, CXMT 공급량만 고려하면 중국 HBM 수요 대비 공급 부족분은 2027년/28년에도 여전히 40~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중국 AI 밸류체인 선호도는 장비>메모리>휴머노이드>팹리스 순

CXMT와 YMTC 중심의 메모리 업종의 대규모 증설로 장비 국산화 가속화가 기대되는 만큼 대표 수혜주인 Piotech과 AMEC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CXMT는 HBM 생산 확대, 차세대 기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나, 대주주 보호예수 해제로 상반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AI 반도체 팹리스 업종은 '27년 화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HBM 공급 병목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하량 증가 전망이 보수적인 상황이다. 휴머노이드는 출하량 기대감, 피지컬 AI 상장사 프리미엄 고려해 유니트리를 선호하며, AI 모델 업종은 수익화 난제가 주된 하방 요인이 될 전망이다.

2026년 11월 19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제약/바이오

시장이 밀어주는 때는 반드시 다시 온다

Overweight

Top Picks

*CP 2026년 11월 18일

셀트리온(068270)
310,000원 I CP 203,000원

한미약품(128940)
720,000원 I CP 483,500원

SK바이오팜(326030)
160,000원 I CP 87,400원

관심 종목

알테오젠(196170)
410,000원 I CP 176,300원

아이엠바이오로직스(493280)
Not Rated I CP 12,380원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밀려 내려왔으나 이제 밀어줄 때에 맞춰 올라갈 차례

개인적인 경험인데, 스쿠버다이빙 중에 종종 물이 수평으로 왕복하는 써지(Surge)를 만날 때가 있다. 물이 내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오면 발을 차도 거스를 수 없다. 이 때는 밀려도 차분히 머물다가, 다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물이 움직일 때 발을 차고 나아가면 매우 빠른 속도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를 겪으며 써지를 만난 기분이 들었다. 호재는 반영되지 않고, 악재만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투자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이 한 해 내내 반복되었다. 그러나 섹터를 순환하고 4Q에 들어서자 제약사부터 서서히 관심이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기업부터 채워야 투자 리스크가 큰 신약 바이오텍으로 기운이 번칠 것이다. 따라서 탄탄한 실적을 보인 제약사에 먼저 비중을 두다가 금리나 섹터 순환매와 같은 바이오텍에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길 기다리며 서서히 바이오텍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전략을 제안한다. 시장이 바이오도 밀어주는 때는 분명 다시 올 테니 차분히 지켜 보자.

Top picks: 셀트리온,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코스피 제약사는 많은 종목이 매력적이지만 그 중 세 개를 꼽아 보았다. **셀트리온**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메디케이드 확대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바이오시밀러가 '27년 내내 주목받을 것이고, 실제 미국에서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미약품**은 6월부터 기술이전 3건을 달성했음에도 연초 2월 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러나 11월5일 에피노페그듀타이드 2b상의 성공적인 데이터를 발표한 후 꾸준한 우상향을 기록 중이다. '27년 이벤트가 많아, 시장이 밀어준다면 가장 먼저 비중을 채워야 할 종목 중 하나다. **SK바이오팜**은 2nd product로 오파칼림을 인수했으나, RISE2 부분 임상 중단된 상태다. 우리는 11월에 임상이 재개되고, 이어서 RISE3 임상 결과 발표(12/4 AES 주목)로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 전망한다.

관심 종목: 알테오젠,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올해 많이 하락한 만큼 업사이드도 높지만, 코스피 제약사의 valuation을 되찾은 후 안정적인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수급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종목 중 하나이다. CMS 약가 인하 이슈로 주가가 크게 하락 하였지만, 올해만 3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27년에도 기술료 수익은 '26년 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PGR은 거의 다 종료되어가고, 내년 독일 특허무효판결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다면 더 빠르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회복될 것이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1.7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실적을 갖고 있으나, peer의 악재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약 3,850억원) 대비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 1H27 내 OX40L/TNF 이중표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Sanofi의 Brivekimig 화농성 한선염 2b상 탑라인 발표 후 이어서 동사의 파이프라인의 글로벌2상 탑라인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 11월 19일 | Global Asset Research

자산배분의 창(窓)

달리는 소비, 고르지 않은 미국 가계 체력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산배분/해외크레딧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소비는 견조하지만, 자산효과와 생활비 부담은 다르게 작동한다

미국 소비는 아직 버티고 있다. 자산가격 상승과 고소득층의 소비가 서비스·여행·여가 지출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의 체력은 균일하지 않다. 연방준비제도의 2025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상위 10% 가계는 전체 부의 약 4분의 3을 보유하는 반면, 하위 50%의 부 보유 비중은 약 2%에 그친다. 자산가격 상승의 소비 진작 효과도 상위 자산보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자산이 적고 생활비 비중이 높은 가계는 필수지출 상승을 더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식료품·주거비 CPI는 각각 32.5%, 33.7%, 에너지 CPI는 54.5% 상승했다. 생산·비관리직 시간당 임금도 37.0% 올랐지만, 필수지출의 상승은 생활비 비중이 높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더 크게 압박한다.

건강보험료도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 KFF (미국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에 따르면 고용주 제공 가족 건강보험의 연간 총 프리미엄은 2020년 2만1,342달러에서 2026년 2만8,303달러로 32.6% 상승했다. 근로자는 이 가운데 일부를 급여에서 직접 부담하고, 고용주는 나머지를 인건비로 부담한다. 보험료 상승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임금 인상·채용 여력을 제약한다.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금융회사와 소기업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소비가 유지되더라도, 카드 사용과 상환 지연에 의존한다면 가계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뉴욕 연은의 2026년 3분기 가계부채·신용 보고서에서 카드잔액 중 90일 이상 연체 비중은 12.9%였다. 같은 시기 실제 이자가 부과된 신용카드 계정의 평균 금리는 22.36%였다. 높은 차입비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 가계의 카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금융회사 지표는 이 부담이 고객군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American Express의 9월 말 미국 소비자 카드 30일 이상 연체율은 1.2%, 원금 기준 대손상각률은 1.5%였다. 프리미엄 고객 비중이 높은 고객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환 여력을 뒷받침한다.

반면 Capital One의 전체 신용카드 30일 이상 performing 연체율은 3.72%, 순대손상각률은 4.01%였다. Ally Financial의 미국 리테일 오토 부문도 30일 이상 연체율은 4.96%, 순대손상각률은 1.89%였다. 회사별 고객층과 상품구성이 다르므로 절대적인 위험 순위로 볼 수는 없지만, 대중 소비자와 자동차금융에 노출된 금융회사의 신용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은 확인된다.

이 부담은 대중 소비자를 고객으로 둔 외식·소매·생활서비스 기업으로도 옮겨간다. 미국 독립·소기업 연맹 (NFIB)의 10월 조사에서 가격을 올린 소기업 비중은 가격을 내린 기업보다 33%p 높았다. 향후 3개월 안에 가격 인상을 계획한 기업 비중도 가격 인하 계획 기업보다 37%p 높았다. 반면 향후 6개월 내 설비투자를 계획한 기업 비중은 21%로 3개월 연속 낮아졌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기업의 가격 인상과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미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까지 12개월간 사업체 파산 신청은 2만6,941건으로 전년보다 16.9% 증가했다. 비용·금리·수요의 압박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여력이 낮은 기업부터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총량 소비의 견조함은 취약 부문의 비용 압박을 가릴 수 있다

총량 소비의 견조함은 미국 경기의 저변까지 건강하다는 의미와 같지 않다. 성장의 상당 부분이 상위 소비층의 자산효과에 의존할수록, 취약 가계의 생활비·이자 부담은 평균 지표에 가려진 채 신용과 기업이익의 하방 위험으로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기와 투자 판단에서는 소비의 규모뿐 아니라 소비를 지탱하는 계층과 그 비용의 전가 경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2026년 11월 19일 | 기업분석

현대글로비스 (086280)

중국에서 확인한 PCTC에서의 성장 기회

BUY (유지)

목표주가(12M)	280,000원
현재주가(11.18)	20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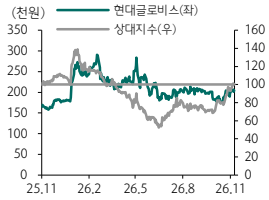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067.44
52주 최고/최저(원)	290,500/158,400
시가총액(십억원)	15,300.0
시가총액비중(%)	0.37
발행주식수(천주)	75,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3.3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8.3
외국인지분율(%)	46.77
주요주주 지분율(%)	
정의선 외 5 인	29.36
Den Norske Amerikalinje AS	11.0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4,088.2	35,567.5
영업이익(십억원)	2,136.2	2,399.8
순이익(십억원)	1,720.6	1,934.3
EPS(원)	22,917	25,761
BPS(원)	155,407	176,51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8,407.4	29,566.4	34,212.5	36,551.5
영업이익	1,752.9	2,073.0	2,112.6	2,313.1
세전이익	1,544.7	2,156.8	2,150.0	2,390.2
순이익	1,093.9	1,733.7	1,676.1	1,815.5
EPS	14,585	23,117	22,348	24,207
증감율	3.09	58.50	(3.33)	8.32
PER	8.10	7.81	8.99	8.30
PBR	1.01	1.31	1.29	1.14
EV/EBITDA	3.55	4.52	4.51	3.81
ROE	13.24	18.13	15.20	14.58
BPS	116,975	138,016	156,047	175,916
DPS	3,700	5,800	6,100	6,5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중국 자동차 수출 급증과 맞물린 PCTC 선대 확장의 절묘한 타이밍

우리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관으로 자동차 운반선(PCTC)을 건조한 중국 조선소인 SWS와 상해 자동차 수출항구 운영사인 하이통물류를 견학했다. 이에 우리가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현대글로비스는 2026년 3분기말 기준으로 106척(6,500대 선적 기준)의 PCTC를 보유 중이다. 이번에 견학한 CSSC/SWS는 2023년 발주한 10,800대 선적 규모의 PCTC를 건조한 조선소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연말까지 4척, 2027년 중으로 10척을 인도받을 예정인데, 14척이지만 6,500대 기준으로는 1.66배인 23척으로 환산될 수 있다. 즉, 내년말까지 PCTC 공급능력이 20%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2. 신규 대형선은 운임이 높은 중국 등 비계열 물량을 싣고, LNG 추진선이어서 단위당 연료비도 낮아 매출과 수익성에 모두 기여할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추가 용선도 최대한 확보해 선복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3. 신규 운항될 PCTC들은 상당부분 중국 완성차들의 수출 물량으로 우선 배정될 것이다. 실제 중국 완성차들의 자동차 수출은 9월 누적으로 71% (YoY) 증가했고, 2026년 1천만대를 기록하고, 2027년에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통물류 관계자는 중국 자동차 수출이 2026년/2027년 각각 1,100만대/1,300만대에 육박하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중남미 등의 중국 자동차 수입 규제와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 등 변수가 있지만, 하이통물류의 화주인 중국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관세를 내더라도 중국 내 생산/수출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4. 이러한 가운데 PCTC 시장의 수급은 현대글로비스에게 우호적이다. 현대글로비스가 2023년부터 발주한 PCTC 21척이 2026년~2028년에 걸쳐 인도되는데 비해 경쟁사들이 발주한 PCTC는 대부분 2030년 이후 인도된다. 중국발 자동차 수출의 급증으로 선복이 부족한 구간에 선대를 늘린 현대글로비스가 고운임 물량 확대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이다.

5.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중국 완성차들의 긴급 수송 물량을 확보해 고운임을 적용받고 있는데, 해당 물량을 수송할 PCTC들의 발주 시기가 신조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해당 PCTC의 Payback Period가 짧아질만큼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목표주가 28만원,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

2026년 유류비 등 비용 상승이 운임에 반영되는 시차로 이익 성장이 더뎌 보였다면, 2027년은 PCTC 선대 확장과 비계열 물류를 통한 믹스 개선 효과가 온전히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다. 늘어난 선대로 중국 완성차의 수출 물량을 흡수하고, 장기/초대형 선복 확대와 핵심 거점 직영화로 원가 구조도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7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9% (YoY) 증가한 36.6조원/2.3조원으로 전망한다. 신뢰성있는 배당 성장 정책(배당성향 최소 25%, DPS 전년비 +5% 이상)과 BD 지분가치도 주목한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8만원을 유지하고,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2026년 11월 19일 | 기업분석

제주항공 (089590)

한-중 FTA 타결, 중국 관광객도 제주항공을 타고 온다

BUY(유지)

목표주가(12M)	10,000원(상향)
현재주가(11.18)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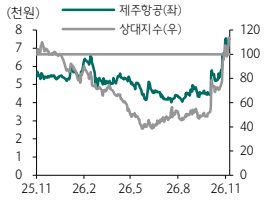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5,067.44
52주 최고/최저(원)	7,540/4,015
시가총액(십억원)	604.8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80,641.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27.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7
외국인지분율(%)	6.80
주요주주 지분율(%)	
에이케이홀딩스 외 4 인	53.6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004.9	2,001.5
영업이익(십억원)	74.5	127.3
순이익(십억원)	130.0	66.9
EPS(원)	1,613	829
BPS(원)	5,503	6,09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935.8	1,579.9	2,005.6	2,016.6
영업이익	79.9	(111.7)	100.8	140.9
세전이익	8.8	(102.8)	222.8	110.5
순이익	21.7	(116.4)	176.0	87.4
EPS	270	(1,443)	2,183	1,083
증감율	(84.46)	적전	흑전	(50.39)
PER	27.78	(3.75)	3.44	6.93
PBR	1.85	1.57	1.43	1.19
EV/EBITDA	5.11	38.53	5.84	5.07
ROE	6.84	(38.85)	50.67	18.85
BPS	4,048	3,442	5,234	6,317
DPS	0	0	0	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한-중 FTA 추가 타결, 한국 여행사가 중국 주요 지역에서 중국인 대상 모객 가능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대해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주요 내용 중에는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진출 여건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국 내 23개 지역(베이징/상하이 등)에서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내 LCC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한-중 항공 노선을 운항하려면 운수권이 필요하며, 따라서 증편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탑승률과 운임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현재 중국 운수권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며,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이다.

일본/중국 모두 호재의 연속, 운임 하방 제한적

제주항공의 현재 중국 내륙 노선 매출 비중은 8%로 주요 항공사 중 가장 높으며, 최근 배분 받은 운수권 노선(베이징 주7회 등)에 신규 취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노선 매출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매출 비중 40%)도 최근 긍정적인 이벤트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엔저가 지속되고 있고, 식약처에서 일본 비만치료제를 반입 가능하게끔 허용하는 등 일본 노선은 높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027년은 유류할증료 경감이 있겠으나 기본 운임 상승, 노선 믹스 조정이 맞물리며 2026년 대비 평균 국제선 운임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6% (YoY) 예상) 예상한다.

증익 가시성 높다. 목표주가 10,000원으로 상향 조정

최근 싱가폴 항공유 가격이 $150/배럴 내외로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2027년 항공유 단가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고(단가 -15% (YoY) 하락 가정), 수요는 일본/중국 노선 위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2027년 제주항공 실적 전망치를 매출액 1% (YoY) 증가한 2조 170억원, 영업이익은 1,400억원(+40%, 영업이익률 7.0%)으로 수정하여 제시한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고, 이익 추정치 변경에 따라 목표주가를 10,000원(기존 7,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Target Multiple P/E 8배 적용).

2026년 11월 19일 | 산업분석_Update

무선 통신 장비

3년전 BEAD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OBBBA를 봐라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11월 18일

쏠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7,69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55,70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32,40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70,000원 | CP 19,62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23,00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9,680원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23년 미국 BEAD 프로그램 예산 반영이 24~26년 광통신 주가 폭등을 초래

2023년 6월 미국에서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프로그램 예산 반영이 확정되었다.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고속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2024년 트럼프/바이든 대통령 후보 공약이기도하다. 총 예산은 5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정부 정책은 결국 데이터센터 건설 열풍과 맞물려 미국 광통신 주가를 폭등 시켰다. 루멘텀과 코히런트가 대표적이다. 루멘텀 실적은 2025년도에 들어서야 본격 호전 양상을 나타냈지만 주가는 2023년 바닥으로 2024년 이후 상승세 돌입, 2025~2026년 상반기 폭등 양상을 나타낸 바 있다.

25년 7월 OBBBA 제정 통한 향후 총 800MHz 주파수 경매 계획에 주목

현 시점에서는 과거 BEAD 프로그램 성과를 토대로 2025년 7월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OBBBA 법안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2029년까지 총 800MHz에 달하는 주파수를 통신사에 할당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미국은 5G/6G 용도로 총 1,400MHz에 달하는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며 총 5G/6G 주파수 사용량이 2배 커진다. 한국 대비 4배 많은 수준이며 전 세계 최대 5G/6G 주파수 보유국이 된다. 미국이 이렇게 주파수 할당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막대한 재정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피지컬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ICT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인데 스페이스X와 엔비디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AI-통신(위성/지상망)-디바이스(자동차/로봇)를 갖춰 피지컬 AI를 장악하려는 스페이스X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AI RAN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엔비디아가 5G/6G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과거 각국 행정부와 글로벌 ICT들의 주파수 할당 정책은 차세대 통신 서비스 도입과 더불어 무선통신장비 업체에게 큰 수혜를 가져다 준 바 있다. 2023년 BEAD 프로그램 예산 확정이 2025년 광통신주 대폭등을 일으킨 것처럼 2025년 OBBBA 법안 통과가 2027년 무선통신장비주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 5G/6G 주파수 경매가 국내 무선 통신 장비주 놀라운 주가 상승을 이끌 전망

미국이 2026년 6월 AWS 3 주파수 경매를 개시한데 이어 2027년부터 본격적인 경매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아직은 2027년 4월 어퍼 C밴드만 확정된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주파수 경매에 나설 공산이 크다. 2029년까지 800MHz를 할당해야 하며 이왕이면 2028년까지 트럼프 정권 내 재정 확보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2019년 KMW, 2020년 에이스테크, 2022년 HFR을 통해 주파수 경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한 바 있다. KMW/RFHIC/LIG아큐버를 중심으로 미국 신규 주파수 경매 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업체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6년 11월 19일 | 산업분석_ Update

엔터/미디어/레저

한한령 완화 기대감 관련 코멘트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11월 18일

하이브(352820)
BUY | TP 270,000원 | CP 166,600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BUY | TP 63,000원 | CP 46,900원

스튜디오드래곤(253450)
BUY | TP 33,000원 | CP 23,700원

하나투어(039130)
BUY | TP 48,000원 | CP 30,750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1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재개되고 있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으며,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또한 처음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중국인 및 외국인의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허가했다.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언제나 한한령은 없다 였기에 규제 완화를 명문화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매우 긍정적이나 한계도 명확하다

정말 이번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보인다. 한국 콘텐츠에서 가장 글로벌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케이팝과 드라마로, 드라마의 일부 규제 완화를 제외하면 게임/영화/여행 등 사실상 중국 내 현지 기업들 대비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만 골라 규제를 완화해주었다. 즉, 관련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몇몇 업체들의 수혜에 국한되어 있을 뿐 산업 관점에서 엄청난 증익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스튜디오드래곤/하나투어 가장 수혜. 엔터/인바운드/미디어도 모두 수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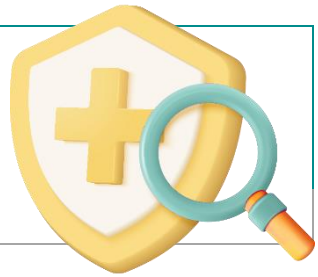
관련 이슈의 직접적인 수혜는 스튜디오드래곤과 하나투어(당사 레져 최선호주)이며, 중장기 관점에서는 엔터/인바운드/미디어 모두 높은 수혜가 예상된다. 콘텐츠 공동 제작을 언급한 드라마 제작사의 경우 한한령 이후에도 여전히 미미하지만 구작 판매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판매 구조는 MG + 현지 방영 시 RS가 있다는 점이다. 즉, 텐센트 등 현지 플랫폼 업체들이 달라진 정부 스탠스를 계기로 기 구매한 한국 드라마 현지 방영을 결정하면 바로 추가적인 판매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공동 제작까지 가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중국 내 현지 아웃바운드 모객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하나투어 등 여행사들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미 동계 시즌에도 동남아가 아닌 일본/중국으로 노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중국향 노선 추가 확대라는 점에서 LCC 등 항공주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만약, 중장기 관점에서 콘서트/예능 제작/중국인 개별 무비자까지 확대된다면 엔터/인바운드/미디어 모두 수혜가 예상된다. 엔터는 약 30% 내외의 증익 상향이 가능하며, 인바운드는 이미 사상 최대임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미디어의 경우 과거 한한령 이전의 대장주는 SBS로 대변되는 예능 제작사였다. 전술한 5개 섹터 모두 수혜가 예상되는데, 모두 역사적 저평가 수준의 주가인 만큼 매수 대응을 추천한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채현 chaehyeonkim@hanafn.com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11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11월 19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코스피 제약사 중심으로 헬스케어 상승 확인

1) 2026년 11월 제약/바이오 산업 중간점검

- **코스피에 집중된 호재 이벤트** 1) 한미약품이 MSD에 기술이전한 에피노페그듀타이드 MASH 2b상 결과가 드디어 AASLD에서 공개되었는데, 모두의 우려와 달리 MASH에 특화된 효과를 보여주었다. 분석법에 따라 데이터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Peer와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7조원 규모로 Novo에 M&A된 Akero의 Efruxifermin과 비교하여 후속 임상 진행을 기대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2) 한올바이오파마도 Immunovant에 기술이전한 IMVT-1402의 D2T RA 2b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p-value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600mg 고용량 지속 투약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개선된 지표를 보여주었다. 3) 미국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확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 복지를 넓히는 정책을 주장할 것이고, 그 골자에는 예산 확대와 함께 수혜 대상의 확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약가에서 오리지널 대비 유리한 바이오시밀러사의 주가가 상승하였다. 대표적인 종목은 셀트리온과 삼성에피스홀딩스이다. 섹터별 수익률을 보았을 때 헬스케어가 상위권에 있으나, 이러한 호재 이벤트가 코스피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서인지 현재 헬스케어 섹터 수익률은 코스피 제약사가 견인하고 있다. 한편 코스닥150 종목 변경으로 제약/바이오 중 알지노믹스, 큐리언트, 에이프릴바이오가 신규 편입되었고, 지아이이노베이션은 편출 결정되었다.
- **'27년 연간 전망 발간** 연간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살펴보아도 한미약품이 높은 선급금 비율로 총합 약 5조원 규모의 기술이전을 달성한 것과 알테오젠의 4건 기술이전을 제외하면, 섹터 전반적으로 개수는 부진하였다. R&D 성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스피 제약사 쪽에서 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미국 바이오텍의 주가(IBB)가 견조해 보이는 이유는 실적과 R&D 성과가 모두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스닥 바이오텍에도 수급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성과 입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선은 국내 제약사의 valuation이 과거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인식될 시기에 코스닥 바이오텍도 우상향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 이때 바이오텍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상승 트리거는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바이오텍(리가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디앤디파마텍, 올릭스, 에스티팜 등)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의 혹독한 시장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안목은 다시 한 단계 더 높아진 상태이다. 따라서 주가 상승 재료로 단순히 기술이전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른 R&D 성과, △계약 조건과 대상이 명확한 기술이전, △뚜렷한 개발 전략과 구체적인 데이터와 MoA로 설명 가능한 기술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2026년 11월 추천 종목

- **11월 코스피 Top pick(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제 주가에 대한 영향은 무뎌진 듯 하고, 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설명서상 11월경 6공장 증축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2) SK바이오팜은 Biohaven이 RISE2 임상을 11월 내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서 12/4 AES가 있어 RISE3 임상 탑라인 발표도 기대된다. 한미약품은 중장기 Top pick이지만 11/5 AASLD 이벤트 종료로 단기 Top pick 교체한다.
- **11월 코스닥 Top pick(변경): 올릭스, 디앤디파마텍** 1) 올릭스는 황반변성(GA) 치료제에 대한 뉴질랜드 IND 신청이 반려된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재신청 후 승인되어 문제는 해결되었다.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빅파마들의 관심 확인, 4Q26 내 탈모 치료제 1b 데이터 확인, Lilly와의 개발 진전에 따라 주가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2) 디앤디파마텍은 R&D 데이에서 연내 DD01의 기술이전 성사를 시사하여 기대감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1월 JPMHC 일정 전후를 특히 주시하고 있다. 알테오젠은 중장기 Top pick이지만 3Q26 실적 발표 이벤트 종료로 단기 Top pick 교체한다.

2026년 11월 19일 | Global Equity_Earnings Review

Nvidia (NVDA.US)

주가 과락 구간에서 회복 예상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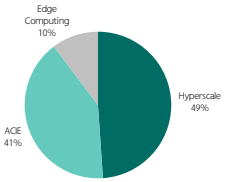
TP(컨센서스)	256.1 USD
CP(11.17)	155.5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Information Technology
주요 영업	Semiconductors & Semiconductor
홈페이지	www.nvidia.com
시가총액(십억USD)	3,746.6
시가총액(조원)	4,991.7
52주최고/최저()	243.37/148.8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9.57
Blackrock Inc	8.05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27.4)	(31.0)	(14.3)
상대	(23.2)	(30.1)	(25.2)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130,497	215,938	415,861	710,949
영업이익	81,453	130,387	272,576	463,091
순이익	72,880	120,067	230,539	386,229
EPS(USD)	3.0	4.8	9.4	16.2
EPS(YOY, %)	130.7	59.5	97.9	71.1
ROE(%)	119.2	101.5	93.2	83.0
PER(배)	48.6	43.0	16.5	9.6
PBR(배)	44.0	29.0	12.0	6.9
배당률(%)	0.0	0.0	0.5	0.6

자료: Nvidia,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박규연 gyuyeonpark@hanafn.com

FY3Q27 Review: ACIE 증가폭이 하이퍼스케일러를 상회

Nvidia는 회계연도 27년 3분기 매출액 1,158억 달러(YoY +103%, QoQ +20%), Non-GAAP 기준 GPM과 EPS는 각각 75%, 2.68 달러를 기록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6% 상회, GPM은 상회, EPS는 8%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10% 증가한 1,07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베라 루빈이 생산 출하 첫 분기에 약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실적에 기여했다. 하이퍼스케일러향(YoY +71%, QoQ +23%) 매출액은 601억 달러로 56% 비중을 차지했고, AI Cloud/Industrial/Enterprise향(YoY +139%, QoQ +25%) 매출액은 47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추가 확대되었다. 해당 성장은 주요 네오클라우드 고객사에 대한 베라 루빈 출하량 증가와 Nvidia의 최첨단 연구소들이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엣지 컴퓨팅 매출액은 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 전분기대비 14% 증가했다. 전분기대비 성장은 블랙웰 워크스테이션과 물리적 AI 애플리케이션용 엣지 컴퓨팅에 대한 기업 수요 증가 덕분이다. 중국 대상 호퍼 데이터센터 제품 라이선스 판매액은 24억 달러였다. 실적 전망에는 호퍼 데이터센터 제품 라이선스 판매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중국에 호퍼 데이터센터 제품 라이선스를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다.

FY4Q27 가이던스: 메모리 가격에 의한 수익성 하락

Nvidia는 회계연도 27년 4분기 가이던스로 매출액 1,300억 달러(±3%), Non-GAAP 기준 GPM 71~72%를 제시했다. 중간값 기준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4% 상회했고, GPM은 소폭 하회했다.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신제품의 램프업 구간에서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을 재차 공유했다. GPM은 4분기에 저점을 찍은 후에 회계연도 2028년에는 72~73% 범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사들과 가격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가시성 높은 수익성 가이던스라 판단된다. 미국 상무부에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가 발표되었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실적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예상한다.

FY2028 매출액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 금융 지원도 확대 기조

Nvidia는 회계연도 2028년(27년 2월~28년1월) 매출액이 전년대비 7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언급해 기존 70% 이상 가이던스를 상향했다. 하이퍼스케일러, 첨단 연구소, AI 전문 기업, 일반 기업 및 정부 기관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요 증가와 공급망의 지원 확대에 힘입어 상향 조정이 가능했다. AI 금융지원 관련해서 변경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며,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코멘트를 공유했다. 네오클라우드 예약 관련 약정액은 320억 달러로 인프라 선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최소 약정액을 초과하는 임대 수익에 대해서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총 보증액은 1,180억 달러이며, 여기에는 PORTS-Pike 캠퍼스 토지, 전력 및 시설 용량에 대한 1,050억 달러 규모의 신용 지원이 포함된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AI 생태계 지원에 지속 기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연간 실적 상향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단기 과락에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11월 18일 | Global Equity

월트 디즈니(DIS.US)

스트리밍 성장에 더해 수익성 개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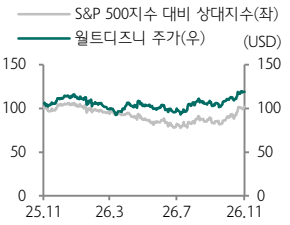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129.33 USD
CP(11.18)	116.94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주요 영업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www.thewaltdisneycompany.com
시가총액(십억USD)			199.7
시가총액(조원)			265.7
52주최고/최저(USD)			122.72/92.185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84
블랙록			8.12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7.3	15.6	12.3
상대	10.5	15.4	1.2

Stock Price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94,425	102,344	106,451	111,144
영업이익	13,832	16,497	20,345	21,897
순이익	12,404	9,899	11,879	13,062
EPS(USD)	5.2	6.5	7.5	8.4
EPS(YOY, %)	(12.2)	26.7	14.7	11.7
ROE(%)	8.9	8.9	9.9	11.0
PER(배)	22.0	15.6	15.6	14.0
PBR(배)	1.9	1.6	1.7	1.6
배당률(%)	0.9	1.5	1.5	1.7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채현 chaehyeonkim@hanafn.com

FY4Q26 Review: OP 50억달러(+43% YoY)

FY4Q26 매출액/영업이익/조정 EPS는 각각 $260억(+16% YoY)/$50억(+43%)/$1.77(+59%)를 기록하며 컨센서스($252억/$49억/$1.66)를 모두 상회했다. 엔터테인먼트/스포츠/체험 부문 영업이익은 각각 $13억(+92%)/$14억(+53%)/$23억(+20%)를 기록했다.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마블 콘텐츠 및 해외 로컬 오리지널 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매출 $119억(+17%), 영업이익 $13억(+92%)을 기록했다. SVOD 매출은 $61억(+19%)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8.24억(+105%)으로 세 분기 연속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스포츠 부문은 NFL 및 대학 풋볼 시청률 호조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체험 부문은 홍콩/상하이 파크 부진에도 디즈니랜드 파리와 월트 디즈니 월드의 호조가 이를 상쇄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FY29까지 연간 $30억 비용 절감 추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에도 아시아 지역 파크 부진 및 광고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는 장마감 후 1.5% 하락했다. 회사는 상하이, 홍콩 파크의 소비 위축이 FY27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나, 연간 EPS 두 자릿수 성장 등 기존 가이던스는 유지했다.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SVOD 구독 매출 성장이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도 스트리밍 이익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FY1Q27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약 $54억으로 제시했다. 특이 사항으로 FY29까지 연간 약 $30억 규모의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의 대부분을 스트리밍 중심의 콘텐츠 제작 및 기술 투자 등 성장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으로, 비용 절감이 중장기 외형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즈니+ 중심의 생태계 확장 본격화

디즈니+는 스트리밍 중심에서 테마파크, 크루즈, 상품, 게임까지 디즈니 생태계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해외 오리지널 콘텐츠 흥행 및 마블 콘텐츠의 시청 시간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팬 유입과 LTV 상승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회사는 실적 발표에서 내년 콘텐츠 투자액을 전년 대비 9% 증가한 260억달러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디즈니+ 해외 오리지널 편수도 약 3배 늘릴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크루즈 선단도 현재 8척에서 2031년까지 13척으로 확대하며 오프라인 체험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콘텐츠가 팬 유입을 이끌고 디즈니+가 지속적인 접점을 제공하는 가운데, 테마파크와 크루즈 등 체험 및 상품 소비로 연결해 팬 1인당 LTV를 높이는 전략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1/16	206,000	194,700	-5.49%	• DRAM·NAND 가격 상승, HBM4 공급 확대에 따른 메모리 부문 실적 개선으로 전망치 상향 • 대규모 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
SK텔레콤 (017670.KS)	11/16	83,900	82,600	-1.55%	• 가입자 유치 정상화 및 마케팅 비용 안정화에 힘입어 2026년 영업이익 1.95조원 기대 • 비과세 배당 시행에 따른 수급 개선과 앤트로픽 상장 가치 부각으로 재평가 기대
현대글로비스 (086280.KS)	11/16	204,500	204,000	-0.24%	• 중국발 고운임 비계열 물량 확대와 유류할증료 반영으로 3분기 해운 부문 수익성 개선 • 고마진 비계열·High&Heavy 화물 비중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11/16	1,210,000	1,273,000	5.21%	• 내년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Q 증대로 또 한 번의 Level-up이 가능 • 미주 및 유럽 향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Mixed ASP 개선 전망
이수페타시스 (007660.KS)	11/16	88,500	79,900	-9.72%	•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다층 MLB 기판 수요 증가 기대 • 고부가 AI 가속기·네트워크 장비용 제품 비중 확대로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기대
팬오션 (028670.KS)	11/16	4,990	5,140	3.01%	• 해상 운임 상승과 벌크선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3Q 영업이익 1,974억원(YoY +58%) 기록 • 신규 배당정책 발표 및 에너지 스팟 계약 비중 상승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효성티앤씨 (298020.KS)	11/16	303,000	264,500	-12.71%	• 중국 스판덱스 공급과잉 완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업황 회복과 판가 인상으로 호실적 기대 • 유가 변동 영향이 제한적인 사업구조와 낮은 밸류에이션에 투자 매력 부각
계룡건설 (013580.KS)	11/16	27,100	26,000	-4.06%	• 정부 SOC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 증가 기대 • 민간참여 공공주택 및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1/16	18,700	19,620	4.92%	• 국내 3.7GHz 대역 추가 공급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5G 통신장비 투자 확대 수혜 기대 • 에릭슨향 신규 장비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2027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전망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66%	+0.52%p	+69.40%	+35.6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1/16	206,000	194,700	-5.49%	• DRAM·NAND 가격 상승, HBM4 공급 확대에 따른 메모리 부문 실적 개선으로 전망치 상향 • 대규모 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에 따른 주가 재평가 기대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1/16	18,700	19,620	4.92%	• 국내 3.7GHz 대역 추가 공급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5G 통신장비 투자 확대 수혜 기대 • 에릭슨향 신규 장비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2027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전망
GS건설 (006360.KS)	11/9	29,750	30,550	2.69%	• GS그룹 동해 AI 데이터센터 1.2GW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신규 성장동력 확보 기대 • 연간 분양 물량 1.7만 세대 달성 기대에 힘입어 2027년 실적 개선 본격화 기대
SK가스 (018670.KS)	11/9	234,000	223,000	-4.70%	• 동절기 아시아·유럽 LNG 가격 상승에 따른 LNG-LPG 스프레드 확대 수혜 기대 • 파생상품 평가이익 및 트레이딩 수익 확대에 힘입어 연간 순이익 사상 최대치 달성 기대
코스맥스 (192820.KS)	11/2	247,000	296,000	19.84%	• K-뷰티 글로벌 수요 확대와 국내 인디 브랜드 수출 호조로 3분기 호실적 전망 • 미국 법인 흑자전환과 동남아 사업 턴어라운드, 중국 매출 회복으로 ODM 경쟁력 강화
계룡건설 (013580.KS)	11/2	22,250	26,000	16.85%	• 정부 SOC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 증가 기대 • 민간참여 공공주택 및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
SK바이오팜 (326030.KS)	10/26	76,900	85,900	11.70%	• 엑스코프리 판매국 확대에 따른 로열티·원료의약품 매출 성장 기대 • 오파칼림 임상 재개 시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 가능성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10/19	1,229,000	1,273,000	3.58%	• 내년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Q 증대로 또 한 번의 Level-up이 가능 • 미주 및 유럽 향 수출 비중 확대에 따른 Mixed ASP 개선 전망
한미약품 (128940.KS)	10/19	397,500	438,500	10.31%	• 로수젯 등 주력 제품 성장과 북경한미·한미정밀화학 실적 개선으로 견조한 이익 성장 기대 • 에페글레나타이드 상용화와 차세대 비만치료제 임상 진전이 중장기 기업가치 상승 모멘텀
티에프이 (425420.KQ)	10/19	62,900	75,600	20.19%	• cpo, socamm 등 어플리케이션 확대, 고객사 다변화로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 테스트 수요 성장에 따른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세 지속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22%	+11.89%p	+23.76%	-10.03%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 AI테크TOP10 (485540)	2026.07.16	16,205	13,095	-19.2%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HANARO 미국 에이전틱AI TOP2+ (0227L0)	2026.09.22	10,655	9,045	-15.1%	• 에이전틱 AI 밸류체인 중 모델 기업과 인프라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패시브 ETF. 상위 TOP2 종목을 각각 25%씩 편입하는 집중된 구조 • - 9월 초 공개된 메타의 AI 에이전트 서비스 흥행으로 AI 에이전트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전틱 A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는 AI 모델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26,900	-9.0%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AI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615	-4.4%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3,715	-33.2%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RISE 미국AI클라우드 인프라 (0127R0)	2026.09.22	16,720	9,850	-41.1%	• 미국 상장 네오클라우드 4개 기업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6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네오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전력, 광통신 등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을 함께 편입하는 것이 특징 • AI 연산 수요 증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네트워크 등 인프라 병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네오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의 동반 수혜 기대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27,285	-26.0%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7,345	-26.4%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0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67.42	-23.8%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460.10	41.1%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FTXL (미국 반도체 퀄리티)	2026.09.22	247.92	191.84	-22.6%	• 미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기업 중 이익, ROA, 모멘텀, 현금흐름 등 펀더멘털 및 주가 흐름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ETF.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편입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 •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경계감도 동반 상승하는 구간에서, 특정 종목 쏠림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1.73	-1.5%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1.86	8.8%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NCLD (AI 컴퓨팅 인프라)	2026.09.22	24.84	12.60	-49.3%	•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확보가 주요 병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능·고효율 AI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55.15	-15.0%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45.28	-7.0%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일본 3분기 GDP P (-0.1%, 이전치 1.4%) ▪중국 10월 소매판매 (0.4%, 이전치 1.1%) ▪중국 10월 광공업생산 (4.8%, 이전치 5.5%) ▪중국 10월 고정자산 (-8.1%, 이전치 -7.2%) ▪일본 10월 광공업생산 (1.7%, 이전치 1.9%)	▪영국 9월 ILO 실업률 (4.6%, 이전치 4.7%) ▪독일 11월 ZEW 서베이 (35.6, 이전치 28.1) ▪미국 10월 소매 판매 (0.2%, 이전치 0.8%)	▪영국 10월 CPI (3.6%, 이전치 3.5%) ▪유로존 10월 CPI (E 4.0%, 이전치 4.0%) ▪미국 10월 주택착공건수 (E 2.4%, 이전치 -5.2%)	▪일본 9월 핵심기계수주 (E 13.5%, 이전치 18.6%) ▪미국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E 21.0, 이전치 20.9)	▪한국 10월 PPI (E --, 이전치 7.7%) ▪일본 10월 CPI (E 2.5%, 이전치 2.1%) ▪중국 11월 기준금리 (E 3.0%, 이전치 3.0%)	▪유로존 11월 소비자기대지수 (E -18.0, 이전치 -17.9) ▪미국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E 51.5, 이전치 51.0)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독일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2) ▪독일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5) ▪유로존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2.7) ▪유로존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8) ▪미국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4.9) ▪미국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6.1)	▪일본 11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3) ▪일본 11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7) ▪독일 11월 IFO 예상 (E --, 이전치 91.6)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 이전치 0.3%)	▪미국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E 92.1, 이전치 91.7) ▪미국 10월 개인소득 (E 0.3%, 이전치 0.2%)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 (E 1.0%, 이전치 1.9%)	▪한국 11월 기준금리 (E --, 이전치 3.0%) ▪독일 12월 Gfk 소비자기대지수 (E --, 이전치 -30.8)	▪중국 11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4.4%) ▪미국 10월 도매 재고 (E --, 이전치 0.7%)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